

## 토마토 마을 광덕마을

본회 기획홍보부  
이아름 주임

광덕마을은 서울에서 포천 방향으로 약 2시간, 춘천에서는 1시간이 소요되는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위치한 쾌적하고, 조용한 마을이다.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화천을 경계로 하는 해발 650m 광덕산 정상에서 코끝을 스치는 신선한 바람과 함께, 발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굽이치는 산자락을 따라 기암괴석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도착하게 되는 광덕마을은, 마을로 들어서면서부터 '도시를 떠나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조용하고 꾸밈없는 마을이다.

87호의 농가에 약 215명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광덕마을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로, 2002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었으며, 2002년 강원도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2004년 1월 녹색농촌마을가꾸기 우수마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산과 계곡이 어우러져 있어, 봄이면 광덕산 자락에 희귀한 식물들의 군락지와 향기로운 산나물이 너울거리고, 한여름엔 시원한 숲 속 그늘 아래 흐르는



▲ 광덕마을 입구에 있는 입간판

계곡에 발을 담그며, 가을에는 기암절벽을 볼태우듯한 단풍의 향연을 볼 수 있다. 더불어

흰눈에 덮인 겨울 광덕산의 아름다움은 알프스의 어느 산자락을 옮겨다 놓은 듯 하다는 평을 듣는 광덕마을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덕분에 광덕마을로 가는 길이 지루하지 않고, 광덕마을에서 나올 때에도 눈을 사로잡는 자연경관들이 이어져 몸과 마음이 모두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해준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칠 때,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다시 방문하고픈 마음을 강하게 자극한다.

광덕마을의 대표적 농산물로는 유기농 토마토와, 무농약 오리쌀, 느타리 버섯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무농약 인증을 받은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다고 한다. 특히 광덕마을이 자랑하는 유기농 토마토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농협 하나로 마트 등 국내 굴지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는 국내 제1의 토마토로 1,500평 당 평균 6,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냈다고 하며, 작황과 가격이 좋았던 2003년도에는 1,500평 당 1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토마토 마을인 광덕마을은 토마토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제작, 홈페이지 상에서 토마토의 효용을 알리는데 활용하고 있어, 어린이 친구들의 흥미



▲ 홈페이지에서 토마토의 효과를 보여 주는 광덕마을의 캐릭터



▲ 광덕마을 소식지

페이지 방문을 즐겁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또한 주말농장, 토마토 수확체험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광덕마을은 마을입구에 위치한 마을회관

옆으로 국내 최초의 무인농산물 판매점을 개점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다. 순수한 이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만을 판매하므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무인 판매장이므로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혹시나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 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마을 주민의 말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살만하다는 것을 반증하듯 손해보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유인 농산물 판매점을 만들어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무인판매점도 한번쯤은 고려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광덕마을 주민은 무인 농산물 판매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우리의 순수한 농심을 팔고, 세상 사람들의 천사 같은 양심을 사는 곳! 저희 광덕마을의 무인 판매점입니다.”

광덕마을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토마토와 오리쌀, 견고추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광덕마을을 방문했던 고객들에게 격월로 마을 소식지 “광덕마을”을 제작하여 송부하고 있어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재방문을 효과적으로 창출해내고 있다. 처음 마을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손으로 하나하나 감사의 편지를 쓰던 것이 숫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오늘날의 소식지로 변모하였다고 한다. 더불어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도 마을의 소소한 소식까지 게시하여 마을을 방문했던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관심을, 또 방

문하려는 사람에게는 마을에 대한 친근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마을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 아래 모든 주민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강사를 마을로 초빙, 마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마을 주민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다. “강원도의 조그만 마을에서 유명한 박사님들께 강의를 부탁드린다고 마을로 오시라고 하면 ‘뭐 이런 마을이 있냐’ 생각하시며 어떤 마을인데 마을로 부르나 궁금해서 오신대요.”

마을을 방문했던 강사들은 광덕마을 주민의 교육 열에 감동을 받아 더욱 많은 것을 전해주려 하고 작은 것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신다고 한다. 또한 마을 자체적으로 유럽연수,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광덕마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지도자만 깨어 있어서는 주민과의 공감을 얻어내기 어렵다는 것, 마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마을의 모든 주민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 마음이 될 때 도농녹색교류는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속적으로 마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광덕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

〈광덕마을 홈페이지 : <http://www.kwangduck.or.kr/>〉



▲ 제4기 최고지도자 과정 수강생의 광덕마을 방문(2004. 4.)